

교회학교 성경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탐구 : A 교회 주중성경학교 학생의 질문을 중심으로*

An Inquiry into the Meaning-Making Process in Church School Bible Reading: Focusing on Student Questions at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김정준 (Jeongj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Bible school students construct meaning from their questions during the process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Bible. This inductive qualitative case study analyzed a year of accumulated teacher logs from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examining students' questions and their resolution processes to trace the journey of meaning-making.

The study found that students asked three types of questions: (1) foundational inquiry questions for factual verification, historical exploration, and symbolic interpretation; (2) deepened thinking questions regarding logical reasoning, extra-textual assumptions, and the nature of God; and (3) spiritual application questions concerning moral values, eschatology, and practical life application. To resolve these questions, students engaged in three main processes: self-directed inquiry (self-questioning), communal inquiry (peer discussion, information searches, and AI utilization), and leader-supported inquiry (teacher and ministry staff interven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students' questions progressed from basic textual exploration to advanced reasoning and spiritual application. Furthermore, students demonstrated an active role in constructing meaning through self-directed and communal inquiry, moving beyond passive learning.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wofold: academically, it extends the Community of Inquiry model to the context of youth religious education and incorporates AI as a new variable. Practically, by providing a concrete analysis of student questions and meaning-making processes, it provides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사당로 143, jjkim@csu.ac.kr

김 정 준

critical insights for designing learner-centered pedagogical models in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Church School, Bible Reading, question, meaning-making, communal inquiry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다. 존 칼빈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Calvin, 문병호 역, 2020).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정이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텍스트의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신앙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전인격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서혜정, 2021 ; 신현광, 2013 ; 신현호, 2023 ; 안은주, 1999).

‘의미 구성’이란, 학습자가 텍스트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경험, 환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고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의미 구성 개념은 구성주의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비고츠키(Vygotsky, 1986)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기능과 의미 구성 과정은 개별적인 지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여 내면화된다. 특히 학습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적인 언어와 사회적 대화는 사고를 발달시키는 인지적인 도구가 된다. 여기에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ZPD) 내에서 교사의 정교한 비계설정이 더해지면 의미 구성은 더욱 촉진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가르치는 교사는 지식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닌 학습자의 탐구를 돕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학습자는 수동적인 지식의 수용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미를 발견해 가는 ‘주체’로 서야 한다(고아라, 2025). 하지만 교회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이 되는 성경이 성인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문서인 동시에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한자어 기반의 어휘, 복잡한 서술 방식과 많은 등장인물은 학습자의 이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윤철희, 2017).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였는데도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성인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의 읽지 않거나 사건이나 인물 중심의 성경 이해 수준에서 머무르는 성도도 많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국교회 내 성경 읽기 노력의 부재는 신앙의 미성숙을 넘어, 기독교인의 정체성 결여, 이단의 현혹, 기독교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된다(송우재, 2013). 게다가 교회학교 교육 시간 중에서 성경을 읽고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은 대부분 20분을 넘지 않고,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 수업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초중등 학생이 성경을 읽은 후 제기한 ‘질문’을 성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주목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질문은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인지적 노력과 삶에 적용하려는 영적 고민이 담긴, 의미 구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다.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문은 질문 주체자의 인지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질문은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의 수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아라, 2025 ; 박보미, 2019). 학생의 질문은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이자,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며 여타의 다른 학습 방식에 비해 학습자 이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촉매제가 된다(Graesser & Person, 1994).

또한 학습자의 질문은 교사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진단하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사의 교수 행위를 성찰하며 자기 계발을 자극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박정진·윤준채, 2004 ; 양미경, 2002 ; 황청일·임호영, 2011).

교실에서의 질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질문 형태를 분석한 연구(강향립, 2009 ; 정선화, 2010 ; 진영은, 2000 ; 최일선·지옥정, 2006)와 교사의 질문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권낙원·민용성, 2003 ; 박라미·안준희, 2005 ; 선주원, 2003 ; 이종일, 2004) 등 교사의 질문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를 돕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대안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실제 학생이 수업에서 무엇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알게 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학생 질문에 대한 국내연구는 구성주의의 도입과 함께 활발해졌는데, 이런 연구들은 학생의 질문이 수업에 미치는 효과나 의미 구성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 질문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김성근·여상인·우규환, 1999 ; 이명숙·조광희·송진웅, 2004 ; 최선미·여상인, 2011), 학생 질문 문화의 실태와 질문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양미경, 2002 ; 황청일·임호영, 2011) 등이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질문 혹은 학생 질문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박보미, 2019 ; 박정진·윤준채, 2004 ; 박정진, 2006 ; 손은주·박영태, 2011)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교사와 학생 양측을 모두 수업의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질문의 기능과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축적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실행된 연구이며 교회학교에서의 성경 읽기나 질문,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나 의미 구성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질문은 수업의 질을 가능하고 학습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교회학교에서 학생의 질문은 가치가 더욱 크다. 우선,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텍스트는 학교 교육을 위한 텍스트와 비교된다.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 전문가들이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한다. 이에 비하여 성경을 교재로 하는 교회학교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생이나 동일한 교재인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 본문은 분량도 많고 어휘의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표현도 일상적이지 않아 학교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성경 번역본을 달리한다 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김재우, 2017). 이는 성경의 내용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물리적 환경과 현저히 동떨어진 ‘까마득한 그때, 거기’를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등장인물과 복잡하게 얽힌 사건과 서술구조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초중등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분석한다면 학생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출석하는 교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주중성경학교 설립 초기부터 8년째 함께 하면서 초등, 중등 학습자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중 하나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상호작용적 수업 모형을 찾아가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사역자와 함께 교사의 수업 일지를 살펴보거나 행정지원팀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주목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주중성경학교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깊이, 삶에 적용하려는 고민이 성인을 방불하여 놀라곤 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였고, 교사와 학습자가 친밀해질수록 질문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질문이 학생의 사고와 인지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질문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 발달의 단계를 가늠하고 교사가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발문을 준비하는 등 상호작용적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파울러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 이론을 기초로 신앙 발달 이론을 확립하고, 인간은 일생 동안 6단계를 거쳐 신앙이 발달한다고 보았다(Fowler, 사미자 역, 1987).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는 영아기의 무분별한 신앙 단계(0단계)와 전조작적 특성을 보이는 유아기의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 단계(1단계)를 지나 구체적 조작기인 학령기가 되면 논리적 사고가 시작된다. 구체적 조작 수준에 있는 학습자는 발달을 지속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과 별의 관점에서 우주의 규칙을 이해하는 신화적이고 문

자적인 신앙 단계(2단계)에 이르게 된다. 형식적 조작기로 진입하는 만 12세 무렵이 되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인간관계와 소속집단의 가치관을 자신의 신앙으로 종합하는 인습적 신앙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후 청년기와 성인 초기가 되면 개별적이고 성찰적인 신앙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연구자는 주로 2단계에 있거나 3단계로 진입하는 학생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의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통찰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활발하게 질문하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구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리슨, 앤더슨과 아처(Garrison, et al., 2000)는 교수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탐구공동체(CoI)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학생의 질문은 인지적 실재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며,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해결 과정은 사회적, 교수적 실재감을 구현하는 활동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학습자 내면의 의미 구성은 촉진된다. 따라서 CoI 모형은 본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질문-해결-의미 구성의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의 수업 일지에 나타난 학생의 질문 내용과 해결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 구성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교회학교 수업 설계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질문이 그들의 사고 수준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가 되며, 이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한 개인의 인지 작용을 넘어 공동체적 탐구의 역동 속에서 이루어질 때 심화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A 교회 주중성경학교를 사례로, 학생들이 성경 읽기 과정에서 제기하는 질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1년간 축적된 교사의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귀납법적인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교수법 개발과 교회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 신앙 교육 현장의 실제적 고민을 학문적 탐구와 연결하여 미래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참여적 교수학습 모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학문적, 실천적 의의를 두고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주중성경학교 학생들의 성경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문의 유형과 특성은 무엇인가?
2. 학생의 질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가?
3. 학생의 질문과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기관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성경 텍스트를 매개로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질문을 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의미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일지에 기록된 질문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이루는 의미 구성의 과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합한 귀납적 접근의 질적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기관은 연구자가 협력권사 및 프로그램 자문으로 활동하는 A 교회의 주중성경학교다. 해당 기관은 2025년 3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1학기 16주 32회와 9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2학기 12주 2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강일과 종강일, 매월 한 번씩 코너별 전체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7회의 바이블 데이, 소풍, 체육대회 등 10회의 행사를 제외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루 1시간 30분씩 총 46차시의 성경 본문 탐구와 연계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순위 형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원하는 중학생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며 타 교회 교인과 비신자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연구 기간인 2025년도 본문 진행 일정은 표 1과 같다. 연구 기간인 2025년에는 1학기 창세기, 2학기 출애굽기 본문을 다루었다.

표 1. 2025년 A 교회 주중성경학교 연간 일정표

1학기			2학기		
월	일	본문/일정/내용	월	일	본문/일정/내용
3	4	개강예배/목장 모임	9	2	개강예배/목장 모임
	6	1과 모든 것의 시작 (창1:1-2:3)		4	1과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구원 (출1:1-2:25)
	11	2과 에덴에서 일어난 일 (창2:4-3:24)		9	2과 모세야, 모세야! (출3:1-4:31)
	13	3과 첫 사람의 세 아들 (창4:1-5:32)		11	3과 여호와가 누구냐? (출5:1-6:27)
	18	4과 이 세대에 의로운 사람 (창 6:1-7:24)		16	4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재앙의 시작 (출6:28-8:32)
	20	5과 언약의 증거 (창8:1-9:29)		18	5과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계속되는 재앙 (출9:1-10:29)
	25	6과 우리의 성을 세우자 (창10:1-11:26)		23	6과 이 날을 기념하라 (출11:1-13:22)
	27	바이블데이 ¹		25	7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출14:1-15:27)
4	1	7과 복이 되어라 (창12:1-13:18)	30	8과 광야에서 먹는 양식 (출16:1-17:16)	
	3	8과 별을 세어 보아라 (창14:1-15:21)	2	바이블데이/체육대회	
	8	9과 새 이름에 주신 언약 (창16:1-18:16)	7	추석 연휴	
	10	10과 악한 땅에서 일어난 일 (창18:17-19:38)	9	한글날	
	15	11과 나를 웃게 하셨다 (창20:1-21:34)	14	9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 (출18:1-19:25)	
	17	12과 그가 준비하실 것이다 (창22:1-23:20)	16	10과 열 개의 계명 (출20:1-21:36)	
	22	13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창24:1-67)	21	11과 여호와와 법과 절기를 지켜라 (출22:1-23:33)	
	24	바이블데이	23	12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24:1-25:40)	
5	29	14과 두 형제 이야기 (창25:1-26:33)	28	13과 회막을 만들어라 (출26:1-27:21)	
	1	15과 복을 빌어 주십시오(창26:34-28:9)	30	14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출28:1-29:37)	
	6	Break	4	15과 날마다 여호와 앞에 향을 피워라 (출29:38-31:18)	
	8	Break	6	바이블데이	
	13	16과 하늘에 닿은 사다리 (창28:10-30:24)	11	16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출 32:1-33:23)	
	15	17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창30:25-31:55)	13	17과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라 (출 34:1-35:29)	
	20	18과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 (창32:1-33:20)	18	18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출35:30-37:29)	
	22	19과 제단을 쌓아라 (창34:1-36:43)	20	19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38:1-39:31)	
27	20과 꿈꾸는 아이 (창37:1-38:30)	25	20과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다 (출39:32-40:38)		
29	소풍	27	종강예배/수료식/달란트데이		

1) 바이블데이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데 학생 전체가 다 모여서 조를 나누어 본문과 관계된 코너별 놀이나 활동을 한다.

6	3	21과 고난을 만날 때 (창39:1-40:23)	겨울 방학
	5	22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창41:1-57)	
	10	23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창42:1-43:34)	
	12	24과 내가 요셉입니다 (창44:1-46:27)	
	17	25과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 (창46:28-48:22)	
	19	26과 아버지의 축복 (창49:1-50:26)	
	24	바이블데이	
	26	종강예배/수료식/달란트데이	
		여름 방학	

연구 기관은 학기가 시작되기 4주 전, 교회 광고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며, 초등학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한다. 2025년 재학생은 중학교 1학년 여자 1명, 2학년 남자 1명을 포함하여 1학기 58명, 2학기 60명이었다. 학생들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5년째 주중성경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들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본 교회 혹은 타 교회의 성도 혹은 교역자²였다. 학생의 거주 지역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중심이 되지만, 온라인 목장은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아, 통학이 어려운 수도권 지역(구로, 김포, 수원 등)과 대전, 강릉 등 지방 및 해외 거주(노르웨이) 학생도 있다. 특히 지방이나 해외 거주 학생은 본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사한 가정의 자녀들이다.³ 2025년은 학생 2~6명이 한 학급을 구성하며 담임교사 1명이 배치되고 필요에 따라 보조교사가 유동적으로 배치되었다. 담임교사는 25년 1학기 18명, 2학기 18명이었다.⁴ 그 외에 섬김교사 5명, 협력권사 2명, 담당 사역자 2명이 사역하였다. 2025년 주중성경학교 담임교사의 주중학교 경험 및 교육 관련 경력, 목장 구성과 인원은 표 2, 3과 같다. 목장을 구성할 때는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한 목장의 인원이 5명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2) 학생 중 1명은 타 교회 교역자의 자녀였다.

3) 노르웨이 목장에 참여한 학생 1명은 부모님이나 학생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본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참여하였다.

4) 교사 중 2명은 배우자의 해외 근무로 인해 케냐와 노르웨이에 거주하였다. 케냐 거주 교사는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목장을 담당하였고, 노르웨이 거주 교사는 이전의 주중성경학교 교사 경험을 살려 현지에서 자기 자녀와 이웃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2. 2025년 A 교회 주중성경학교 담임교사 현황

	교사	학기		주중성경학교 교사경험	관련 경험 ⁵
		1	2		
1	J	○	○	8년차	현 미술 치료사, 주일학교 교사경력 13년
2	O	○		1년차	초등학교 교사(휴직), 주일학교 교사 12년차
3	H	○	○	3년차	주일학교 교사 15년차
4	P	○	○	2년차	주일학교 3년, 현 독서지도사
5	K	○	○	3년차	전 회사원, 주일학교 교사 5년차
6	J	○	○	2년차	본교회 새가족부 교사
7	C	○	○	1년차	전업주부
8	K2	○	○	1년차	주일학교 교사 2년차
9	O2	○	○	1년차	타교회 교인, 주일학교 교사 21년차
10	L	○	○	2년차	주일학교 교사 2년, 교육학 전공 석사
11	L2	○		2년차	주일학교 교사 2년차
12	O	○	○	9년차	주일학교 및 은혜부 교사 34년차, 전 학원 수학교사
13	C2	○	○	3년차	전 임상영양사 주일학교 교사 15년차
14	S	○	○	1년차	전업주부
15	C3	○		6년차	몬테소리 영어교사, 케냐 선교지 한글학교 교사 경험 주일학교 교사 31년차
16	L3	○	○	4년차	주일학교 교사 경력 16년, 전 학원강사, 몬테소리 영어교사, 현재 케냐 거주. 나이로비 한글학교 교사
17	K3	○	○	3년차	현재 노르웨이 거주
18	L4		○	1년차	주일학교 교사 및 부감 12년
19	Y		○	2년차	어와나 교사 6년,
20	K4		○	1년차	전 고등학교 교사
21	J2		○	3년차	신대원 재학 중, 주일학교 교사 3년
	계	18	18	평균 2.8년	

5) 주일학교 교사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년차로,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년수로 기록하였고, 주일학교라 함은 영아
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전체를 의미한다. 교육 관련 경험과 주중성경학교 교사 선발은 무관하다.

표 3. 2025년 A 교회 주중성경학교 목장편성표

1학기				2학기		
방식	목장	교사	학생구성	목장	교사	학생구성
현장	1목장(7세/1학년)	J	7세 남 1명 초1 남 2명	1목장(1학년)	L3	초1 남 2명 여 2명
	2목장(1학년)	O	초1 여 2명	2목장(1학년)	Y	초1 여 3명
	3목장(1학년)	H	초1 여 3명	3목장(1학년)	J	초1 여 3명
	4목장(2학년)	P	초2 여 3명	4목장(2학년)	C	초2 여 3명
	5목장(2학년)	K	초2 남 2명	5목장(3학년)	J2	초3 여 4명
	6목장(3학년)	J2	초3 여 4명	6목장(2/3학년)	K	초2 남 1명 초3 남 1명
	7목장(3학년)	C	초3 남 3명	7목장(4학년)	L	초4 남 3명
	8목장(4학년)	K2	초4 여 3명	8목장(4학년)	K2	초4 여 3명
	9목장(4/5학년)	O2	초4 남 2명 초5 남 4명	9목장(5학년)	O	초5 남 3명
	10목장(5학년)	L	초5 여 3명	10목장(5/7학년)	K4	초5 여 2명 중1 여 1명
	11목장(6/7학년)	L2	초6 여 3명 중1 여 1명	11목장(5/8학년)	O2	초5 남 2명 중2 남 1명
	12목장(6/8학년)	O3	초6 남 2명 중2 남 1명	12목장(6학년)	P	초6 여 5명
	현장인원	소계	39명	현장인원	소계	39명
ON	13목장(2-4학년)	C2	초2 남 1명 초3 남 1명 초4 남 3명	13목장(1-3학년)	H	초1 남 1명 초2 남 1명 초3 남 2명
	14목장(4학년)	S	초4 여 3명	14목장(3-5학년)	C2	초3 여 1명 초4 여 1명 초5 여 1명
	15목장(4/5학년)	C3	초4 여 1명 초5 남 2명 초5 여 1명	15목장(4학년)	S	초4 여 3명
	16목장(6학년)	L3	초6 여 1명 초6 남 3명	16목장(4/5학년)	J3	초4 여 2명 초5 여 2명
	18목장 (노르웨이)	K3	7세 여 1명 초3 여 1명 초4 남 1명	17목장(6학년)	L3	초6 남 4명
				18목장(노르웨이)	K3	7세 여 1명 초3 여 1명 초4 남 1명
온라인인원	소계	19명	온라인인원	소계	21명	
합계	현12+온5+해외1	합계	58명	현12+온5+해외1	합계	60명

주중 성경학교의 일과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하여 20분간의 전체 예배 후 각 반으로 흩어져 수업을 하고 5시 30분에 다시 전체가 모여 간단한 퀴즈로 배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식을 받고 헤어진다. 수업은 1교시 성경 본문 탐구⁶와 2교시 본문에 대한 연계활동⁷으로 이루어진다. 주중성경학교 일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A 교회 주중성경학교 일과표

시간	활동 내용	모임 형태와 장소	비고
~ 15:55	간식, 자유놀이	전체 모임 예배실	일찍 등교한 학생은 간식을 먹고 허용된 공간에서 놀이하며 교제한다.
15:55~16:00	배운 내용에 대한 영상 자료 시청		온, 오프라인 공동
16:00~16:20	예배와 기도 나눔		
16:20~16:25	교실로 이동		
16:25~17:10	본문 탐구	학급별 모임 각 반 모임 장소	커다란 공간을 4~5학급이 공동 사용
17:10~17:30	본문 연계활동	전체 혹은 학급별 모임	
17:30~	예배실로 이동 퀴즈 및 간식 배부, 귀가	전체 모임 예배실	당일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 하나를 답하고 귀가

담임교사는 1명의 신대원 재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교회 평신도이며 초임부터 9년 차 교사까지 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있거나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원 강사, 과외교사, 각급 학교 교사 이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 교사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방학 중)에 다음 학기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매 학기 개강 직전 이틀간 약 8시간의 교사 세미나⁸와 개강 후 매주 이루어지는 교사 모임⁹을 통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한다.

- 6) 본문 탐구는 자체 개발 교재에 따라 진행된다. 교재의 한 과는 도입 질문, 4~5장으로 나눈 본문 읽기와 궁금한 단어 알아보기, 말씀 생각하기, 말씀 정리하기로 구성되었다.
- 7) 연계활동은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경험하는 활동으로 연계활동 연구팀이 제안한다. 예를 들어 1과 모든 것의 시작 (창1:1-2:3)에서 1교시는 본문을 탐구하고 2교시에는 만화경을 만들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느껴보거나 라파엘의 천지창조 성화를 감상하는 활동을 한다. 연계활동은 저학년과 고학년, 온라인 목장에 따라 활동을 다르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 8) 개강 전 교사 세미나는 교회 부교역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해당 학기 본문 강해와 연구로 이루어진다. 2025년 1학기에는 창세기, 2학기에는 출애굽기 강의를 이틀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총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사를 위해 줄 강의를 병행하며, 강의를 녹화하여 해의 거주자나 필요한 교사가 반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9)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 일주일 전에 담당 사역자가 진행하는 수업 연구 강의를 듣고 팀별(저학년, 고학년, 온라인팀) 토의를 하며 교사의 모의수업, 발문 연구와 연계활동 관련 회의와 자료 점검 등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한다.

담당 사역자는 2명으로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수업 연구와 교사 교육 및 학부모 상담을 담당하는 예배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도사 1명과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을 졸업한 주중성경학교 담당 1년 차 강도사 1명이 행정과 온라인 목장 운영을 담당한다.

연구자는 연계활동과 프로그램 자문 및 협력 권사로, 유아교육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의 배경과 위치는 연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자는 해당 주중성경학교 설립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프로그램 연구와 준비, 8년간 협력 권사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리더십으로 깊이 관여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연구자에게 두 가지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 첫째, 내부자로서 사역자 및 행정지원팀, 교사와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는 다른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교사의 수업 일지와 회의를 통해 현장의 미묘한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연구자는 구성주의의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외부자로서,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Fowler의 신앙발달 이론, CoI 모델의 학문적 렌즈를 가지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치가 가져올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특정 이론의 틀에 자료를 맞추기보다 교사 일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수집된 자료의 목소리를 듣는 귀납적 분석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사역자 및 리더십과의 회의, 교사 모임, 정기적인 연계활동 자문회의, 평가회를 통해 수업과 일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석 과정을 나누는 등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담임교사는 수업을 마친 후 가능한 2~3일 내 교사 일지를 작성한다. 교사 일지는 Google sheet에 출결 사항, 1교시(본문 읽기와 묵상)와 2교시(연계활동)의 수업 내용과 건의 사항, 기도 제목과 학생의 반응, 교사의 수업 성찰을 입력하도록 양식화되어 있으며 입력과 함께 모든 주중학교 구성원에게 공개된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교사 일지 활용 범위, 그리고 익명성 보장 방안에 대해 모든 담임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사일지의 기록 항목은 양식화 되어있으나 서술은 교사에 따라 자유롭게 기록한다. 교사 중에는 일지를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는 사람부터 수업 중 대화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경우까지 개인

차가 있었으며 간혹 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날도 있으나 대체로 성실히 일지를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2025년 1, 2학기의 담임교사 21명의 교사 일지 1년 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를 출력하여 인쇄하였을 때 1학기 일지가 A4용지 9pt로 262페이지, 2학기 일지는 284페이지 분량이다.

연구자는 교사 일지를 담당 사역자와 같이 일지를 읽고, 혼자 반복적으로 읽으며 교사와 학생의 질문과 그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이후 일지에 나타난 학생의 질문과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였을 때 분량은 MS-Word로 66페이지, 106KB였고 도출된 질문은 모두 251개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첫째, 연구자는 교사 일지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질문, 질문에 대한 또래/교사의 반응,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이해 변화나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1차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내용을 MS-Word로 텍스트화하여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인 타겟트(Taguette.org)에 업로드하고 추출된 의미소에 대한 데이터 중심 코딩법으로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그룹화하여 꼬리표를 붙여 예비 범주를 구성하였다. 셋째, 분석된 결과는 연구 문제를 1차 뼈대로 삼아 학생의 질문, 이에 대한 교사와 또래의 반응을 분석하고 잠정적으로 범주 명을 붙여 분석한 후, 각 범주를 비교하면서 수정하거나 보완 작업을 거쳐 의미있다고 판단된 요소를 최종적인 범주로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최종 범주가 연구 목적과 문제에 부합하고 상호 독립적인지, 각 범주가 동일 수준상에 있는지, 범주 명이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추출된 자료와 분류된 범주는 타겟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엑셀 파일로 반출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읽고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범주별 특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추가 면접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학생의 질문은 3개 대범주의 9개 하위 범주, 해결 과정은 3개의 대범주의 6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추출된 질문과 해결 과정에 대한 범주를 표로 제시하면 표 5, 표 6과 같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실의 참여관찰, 보조교사, 사진 및 학생 활동 작품 검토와 수집, 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대화, 추가 면담, 기관의 관리자인 담당 사역자, 총무, 연계활동 팀장과의 회의 및 자료 검토를 통한 삼각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표 5. 학생의 질문 유형 범주

대범주	하위 범주	설명
1. 기초적 탐구 질문 -성경의 사실과 배경 이해	1.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	본문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파악하려는 질문
	2. 역사와 배경 탐구 질문	본문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는 질문
	3. 의미와 상징의 해석 질문	본문의 맥락과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질문
2. 심화된 사고형 질문 -논리와 신학적 가치 탐색	4. 논리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논리적이거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5. 텍스트 너머의 가정형 질문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질문
	6.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통치에 대한 질문
3. 영적인 적용 질문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	7. 도덕과 윤리, 가치에 대한 질문	인물의 심리, 행위, 상황과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적 질문
	8. 초월적 요소나 종말에 관한 질문	초월적 요소나 구원, 종말에 대한 탐구와 적용 질문
	9. 현실적 실천이나 적용에 관한 질문	본문의 실천이나 삶의 적용에 관한 질문

표 6. 학생 질문의 해결 방안

대범주	하위 범주	설명
자기 주도형	자문자답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공동체 탐구형	또래 간 설명	또래끼리 설명하고 해결하기
	토의와 대화	또래와 교사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자료 검색과 AI 활용	자료나 영상 검색, AI에게 질문하여 해결하기
지도자 지원형	교사의 개입	교사가 설명하거나 재질문하기
	사역자 지원	사역자가 설명하거나 개입하기

III. 연구 결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성경 본문으로 다루면서 교사가 일지에 기록한 학생의 질문은 3개 범주에 대한 9개의 하위 범주로, 질문을 해결하는 방안은 3개 범주에 대한 6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연구 문제에 따라 각 범주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학생의 질문유형

(1) 기초 탐구형 질문

학생들은 성경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학년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였는데, 전체 질문 중 기초 탐구형 질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질문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누가, 언제, 어디서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질문,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 비유가 뜻하는 바나 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①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

학생들은 성경 본문을 읽고 사실이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전체 질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이 나타난 범주는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이다. 추출된 질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려는 질문, 문맥과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질문, 식물 이름이나 도량형에 관한 질문이었다.

저학년은 단순히 어휘의 뜻을 묻는 질문이 많은 반면, 고학년과 중학생은 어휘의 뜻과 함께 성경 본문과 다른 성경을 연결 짓는 상호텍스트적인 질문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여자 사사 드보라랑 같은 사람인가요?(초4RA)”, “야곱이 물어달라고 하는 막벨라 동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그 곳이죠?(초6A)”, “라헬이 묻힌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유대땅 베들레헴인가요?(중2A)”와 같이 이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기반으로 성경 전체를 연관지어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려 하였다.

도량형에 관한 질문은 모든 학년에서 나타났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그게 무엇이냐고 직접 묻는데 반해,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은 사백 세겔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초4B)”, “규빗이 얼마 만큼이에요?(초5A)”, “세 스아는 어느 정도 인가요?(초6A)”와 같이 현재의 단위로 환산한 가치를 궁금해하며 현실과 연결하였다.

② 역사와 배경 탐구 질문

당시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질문은 고학년이 더 많았지만 저학년도 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름에)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초1A)”와 같은 질문은 1학년의 질문으로 우리 문화와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고학년은 “이집트 사람들은 왜 목자를 싫어했어요?(초4A)”,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예요(초4C)”, “시날, 바빌로니아, 엘

라살...여기 나와있는 이름들이 지금의 나라처럼 독립된 나라인가요?(초5A)”, “(요셉이 파라오에게 갈 때 다섯 형제만 데려간 본문을 읽으며) 다섯 명만 데려간 건 이유가 있나요?(초6B)”.와 같이 당시의 관습,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 황적인 역사에 관해 물었다.

③ 의미와 상징 해석 질문

학생들은 본문의 상징성과 의미를 해석하고자 질문하였는데 이런 질문은 주로 고학년에서 나타났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다 3년 이네요? 왜 꼭 3년이에요. 3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초4B)”, “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흰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초6A)”, “그러면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못알아본다는 뜻인가요?(중2A)”와 같이 문자적 의미가 아닌 내포된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그동안 읽었던 성경 지식에 근거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까?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광야 40년, 가나안 정탐 40일 성경엔 40 숫자가 많은데 무슨 뜻이 있나요?(초6A)”라고 묻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당일 읽은 성경 본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특정 숫자가 제시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인지하고 숫자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본문 이해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성경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 역사와 배경 탐구 질문, 의미와 상징 해석과 같은 기초 탐구형 질문을 하였다.

(2) 심화된 사고형 질문

학생들은 본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논리를 따지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이성적인 질문, 논리적인 의심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질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질문이 나타났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질문 유형은 논리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텍스트 너머의 가정형 질문,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관한 질문으로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었다.

① 논리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학생들은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려는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탐색형 질문을

자주 하였다. 이런 질문은 고학년이 많았고, 저학년은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추론에 근거하였다. 예를 들어 “(규빗으로)길이를 잴 때 왜 팔길이로 했어요? 다리로 잴 수도 있잖아요? (초1B)”,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면 위생적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초3A)”는 질문은 본문 이해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논리적 추론을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호기심이나 현실에 기초한 질문이다.

초등 3,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창세기를 다룰 때 창조와 진화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과학 도서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성경 본문과 비교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남자만 둘인데 어떻게 자식들을 낳았어요?(초3A)”,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아담이 먼저예요?(초3B)”, “하늘 위에도 바다예요? 과학에서도 막 같은게 있었다고 해요(초4D)”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와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정합성을 찾거나 과학적 상식에 기초하여 논리적 추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고학년은 본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기반으로 본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와 신학적 가치를 탐색하는 양상이 보였다. 예를 들어 “날마다 두 번씩 제물을 바치는데 그러면 (동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초4E)”, “비돔과 라암셋성이 창고성이라는...그렇다면 왕이 머무는 성은 아니네요?(중2A)”, “방주의 크기가 모든 생명체를 싣기에 충분한 크기였을까요?(초6B)”, “바다에 사는 짐승, 물고기들은 비가 와도 죽지 않는 거 아닌가요?(초6A)”와 같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며 본문 이해를 심화하였다.

② 텍스트 너머의 가정형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기반으로 자신의 추론을 첨가하여 “만약 ~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와 같은 가정형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본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건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하와)만 먹고 남자는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만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여자를 또 만들어 주셨을까요?(초2A)”, “하나님이 계속 (파라오를) 일부러 고집스럽게 하셨는데 그럼(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안했을까?(초4D)”,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착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초5C)”, “(만일) 이집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장자도 죽나요?(초6C)”와 같은 질문이 나타났다. 또한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적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후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는데 내용을 통해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연관지어 추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에 바벨탑을 안 쌓았으면 말이 이렇게 나눠 질 일도 없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언어가 한 개였잖아요. 언어가 한 개였을 때는 다들 너무 편했을 거 같아요. 중국어를 안 해도 되고, 영어를 안 배워도 되고...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 다 배워야 해서 너무 싫어요 (초2A, 2025.3.25)

③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질문

본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많은 질문을 하였다. 어떤 질문은 매우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질문도 있었다. 이는 학생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방주를 ‘딱’하고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초2A)”, “아론은 정말 리더로서도 큰 잘못을 했어요.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도 지내게 했는데 그런데(하나님은) 왜 아론은 죽이지 않았을까요?(초3B)”,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전에 아담도 있었는데...(초3C)” 등이다.

초6A: (유다가 가족을 떠나 우상의 소굴이 아둘람에서 산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유다가 나쁘게 되게 만드세요?

교사B: 유다가 선택한 일 같은데~

초6A: 아 하나님을 떠나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거예요?

중2A: 그렇게 살다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생각을 못하나?

초6A: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중2A: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거겠죠?

교사B: 오늘 묵상과 나눔이 너무 좋다~ A형의 이야기처럼 곁에서 안타깝지만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 믿어지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같아. (2025.05.27)

위의 사례에서 족보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학생이 유다가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았었는데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 오신 것에 놀라워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3) 영적 적용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세계관, 가치관으로 내면화하고 삶에 적용하거나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주로 고학년과 중학년에 나타났지만, 저학년에에서도 드물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주의 질문은 도덕과 윤리, 가치에 대한 질문, 초월적 요소나 종말론에 관한 질문, 현실적 실천과 적용에 관한 질문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었다.

① 도덕과 윤리, 가치에 관한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읽고 인물의 행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기준을 정립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저학년에 “제사장만 왜 좋은 옷을 입었어요?(초1B)”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런 질문은 제사장만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된 직관적인 질문이다. 고학년에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초4C)”, “자기가(사라가 하갈에게) 아기를 가지라고 해놓고 왜 갈보기 시작하는 거예요?(초4B)”, “모세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뭔가요?(초5)”, “드라빔은 수호신 같은 우상인데 라헬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걸 챙겨요?(초6A)”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의문을 가졌다. 다음 질문은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성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심화 추론하는 사례다.

아브라함은 이계(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인 것)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봐요? 사라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다르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하는 걸로 보면 아브라함은 죄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맘에 안드시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겠죠? (초2B, 2025.04.17)

특히 여학생은 성경 본문이 남성 위주로 기술된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다. “양피가 뭐예요? 근데 왜 남자만 했어요?(초4B)”, “그런데 야곱이 왜 디나는 축복해주지 않았어요?(초4F)”,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잉? 왜요?(초4D)”, “왜 성경에는 남자만 나와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나요?(초5)”, “하나님은 남자만 좋아하시나요?(중1A)”와 같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남학생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초월적 요소나 종말에 관한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읽고 그 내용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종말, 천국,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비유인가요, 진짜인가요?(초3A)”, “고센 땅은 (재앙이)없었네요?(초5D)”, “그 모든 계(출애굽의 전 과정)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초5E)”와 같은 초월적 요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또한 “세겔은 죄를 저질렀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초4A)”,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그럼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시겠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초5F)”와 같이 구원과 종말에 관한 질문도 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했다.

③ 현실적 실천과 적용에 관한 질문

학생들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학적 가치를 탐색하면서 그 메시지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부탁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탁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초6C)”라며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또한 성경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성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십계명을 배우는 본문 중에 나온 “내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나요? (초4G)”라는 질문도 학생이 십계명을 삶에 적용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또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고 “돌을 다듬는 것은 성형하는 것 같아요. 성형은 죄인가요?(초5G)”라고 돌을 다듬는 것을 성형의 개념으로 보고 그것을 현실의 문제로 가져와 실제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특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로 (우상은) idol이예요.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가요?(초5F)”와 같은 질문은 현대 미디어의 비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반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의 질문은 본문의 지식을 습득하는 기초 탐구형 질문, 본문의 의미를 상고하고 지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논리와 신학적 가치를 탐색하는 심화된 사고형 질문, 본문에 제시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자기 삶에 적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영적 적용형 질문의 3수준으로 나눌 수 있었다. 1수준의 기초적 탐구 질문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나타났다으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학년의 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저학년의 질문은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반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질문은 논리적인 추론을 동반하여 심화하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

학생들은 교사나 같은 목장의 또래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갔다. 이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스스로 의문을 해결하는 자기 주도형, 교사와 또래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 탐구형, 교사나 사역자에게 묻고 설명을 듣는 지도자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범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기주도형 - 자문자답

학생들은 본문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경적 표현이나 현상, 사건에 대하여 의문을 느끼고 질문을 하지만, 교사나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답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고학년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홍수가 그치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의 활동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요?(초6D)”와 같이 자기가 묻고 스스로 해결하는 양상이 보였다.

(2) 공동체 탐구형

① 또래 간 설명

목장에서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때 또래끼리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인이 뭐예요?(초4B)”, “부인의 아버를 장인 장인어른이라고 해(초4A)”, “진을 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초4H), 군대가 싸우려고 줄을 서고 자리를 잡는 거야(초4C)”와 같이 낱말의 뜻을 가르쳐주거나, 문맥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에 대해 또래 간 학습이 이루어졌다. “족보에 다말의 자녀인 베레스와 세라가 적혀있는데 중요한 사람인가요?(초6B),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썼겠지?(중1A)”와 같다.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는 성경의 문맥과 더불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② 대화와 토의

학생들이 한 질문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래와 교사가 함께 공동의 참여자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혼자

생각하고 모르는 채 넘어가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도 자신과 유사한 궁금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해결하였다. 또한 교사나 유능한 또래는 토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교사A: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의 의미는 뭘까?

중1A: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초5H: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중1A: 예수님이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초5B: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네요?

중1A: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2025.10.28)

초6E: 공짜면 좋은건데 (아브라함은) 왜 40억이나 되는 돈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살까요?

중2A: 자신에게 사라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성과 댓가를 들어서 물어주고 싶고 잘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일 거 같고, 나중에 또 헛사람들과 전쟁이 난다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공짜로 준거니까 내놓으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의미로 사서, 대대로 조상 묘 무덤으로 쓰려고 하는 뜻 아닐까요?

교사B: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2025.04.17)

공동체 내에서의 토의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논쟁이 되기도 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3학년 학급의 논쟁은 그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열띤게 이루어졌다. 학생 둘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가를 토의하였다.

초3B: 화석이나 고대 인간의 뼈 같은 걸 보면 인간은 원래 호모 사피엔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한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한 거예요

초3D: 그럼 어디서 진화했다고?

초3B: 유인원,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말야.

초3D: 그럼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는 다 지금 사람으로 진화해 있어야지 왜 아직도 있어? (2025.3.25.)

③ 자료 검색이나 AI 활용

학생이 질문할 때 모바일 폰으로 일방향적으로 자료나 영상을 검색하거나 Chat GPT와 같은 AI에게 질문하며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때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AI를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횡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문화나 종교적 배경과 관계된 질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먼저 AI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여러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름에) 성이 없어요? 왜 이름만 있고 성이 없어요?(초1A)”라고 물었는데 이는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었고 이에 대해 교사는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AI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반응하였다. 또한 “운하가 뭐예요?(초4H)”라는 질문에 함께 인터넷 검색으로 운하의 사진을 찾아보거나, “창세기는 언제 써진 거예요?(중1A)”라는 물음에 AI를 활용하여 알아보기도 하였다.

(3) 지도자 지원형

① 교사의 개입

학생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의문을 제기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재질문하거나 설명하여 개입하기도 했다. 교사는 개강 전 교사 세미나, 수업 전 교사 모임과 개인 연구 시간을 통해 본문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 준비를 했다. 이는 학생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초6D: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담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교사C: 잘못된 자녀가 한 일을 다 아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한 건지 묻는 건 어떤 대답을 원하는 마음인지 생각해 보자 (2025.03.11.)

초6A: 2절에 ‘땅이 혼돈했다’는 말씀은 뭔가 많은 상태의 복잡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복잡할까요?

중2A: 창조하시기 전의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

교사B: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선생님의 생각을 붙잡았어. 이 이야기는 신명기의 말씀에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셨고 모든 것 위에 움직이시는...

(2025.03.06.)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는 사실과 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해 주었지만, 단순한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을 직접 가르쳐주기보다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사의 목상을 나누기도 하였다.

② 사역자의 설명과 지원

학생의 질문 중 교사가 잘 모르겠거나 혹은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한 질문일 때 사역자에게 묻고 설명을 듣는 방법을 찾았다. 교사는 사전 준비를 하지만 어떤 질문은 교사가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내용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교사나 학생이 사역자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도사와 강도사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각 반 교실을 다니며 수업을 참관하는데, 이때 교사와 학생은 사역자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궁금한 것을 해결했다.

초4A: 세겜은 죄를 저질렀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

강도사: 할례는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도 없어.
(2025.05.22.)

초6A: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혈통에 집착하시나요?

전도사: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는 그 자손들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 자손이 되고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것처럼... 그 귀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 장자된 언약으로 지명된 축복된 자녀라 매우 중요한 의미란다. (2025.04.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방안은 자기 주도형의 자문자답, 공동체적 탐구형의 또래간 설명, 토의와 대화, 자료 검색이나 AI 활용, 지도자 지원형의 교사 개입과 사역자의 설명과 지원으로 나타났다.

3. 질문과 문제 해결을 통한 의미 구성

학생들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 해결 과정에서 자신, 컴퓨터, AI, 또래나 교사, 사역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기초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갔다. 그 과정은 질문의 유형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객관적 의미 발견의 단계, 주관적 의미 심화의 단계, 실존적 의미 구성의 단계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의미 구성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객관적 의미 발견-이게 무슨 말이지?

의미 구성의 첫 단계는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서 학생들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며,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고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려는 기초 탐구형 질문과 해결을 통해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객관적 정보를 조사하고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였고, 교사나 사역자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거나 기존의 지식에 동화하려고 지명이나 인물의 이름에 대한 상호텍스트적인 질문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추론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 동시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조하거나, 자신이 이미 구성하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기반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성경 본문에 나타난 관습과 역사를 현재의 문화나 역사, 시대적 상황과 비교하거나 본문의 나타난 단어, 숫자, 표현의 표면적이고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여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아가는 1차적인 단계가 되었다.

(2) 주관적 의미 심화-그건 왜 그렇지?

의미 구성의 두 번째 단계는 주관적 의미 심화의 단계로서 학생들은 본문의 사건, 인물의 행동, 하나님의 통치는 왜 그러한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하는데 집중했다.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썼으며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논리를 제시하거나 추론하였다. 진화론과 창조론 중 어느 관점이 더 과학적인지, 증거가 있는지 갈등하고 친구와 토의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질문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통치의 방법을 어떠한지 그 의미를 정립하였다. 때로는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기초로 지명의 의미를 추론하였고,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본문과 다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했다. 특정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며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현상, 인간의 행동, 하나님의 판단과 하시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해를 심화하며 지적으로 갈등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갈등은 단순한 의심이나 의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개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이해해 가는 단계가 되었다.

(3) 실존적 의미 구성-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학생들은 본문을 읽고 기초적인 탐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에서 본문에 대해 주관적인 의미를 심화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자신의 삶의 수준에서 실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학생들은 인물의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면적 윤리와 가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연결되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받았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볼 수 있는지, 현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적인 실천과 적용에 대해 성찰하는 3차적인 단계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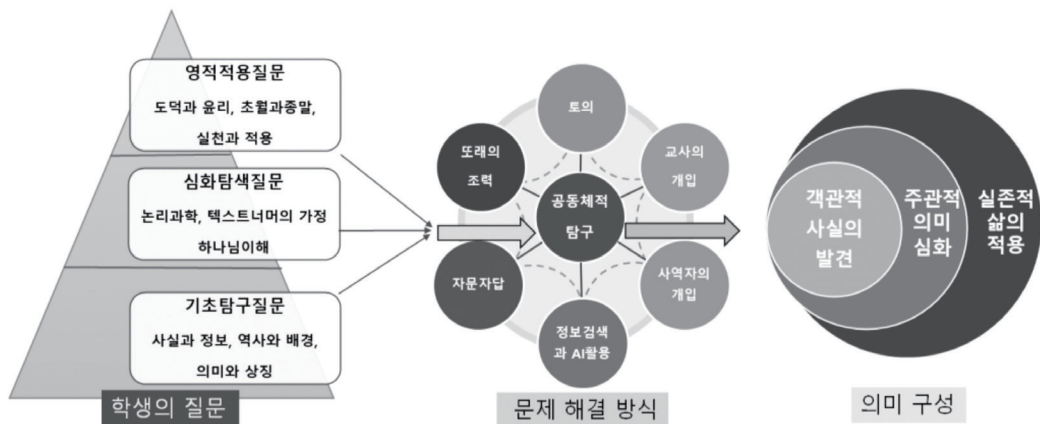


그림 1. 학생의 질문과 문제 해결을 통한 의미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질문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한 의미의 구성은 기초 탐구형 질문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의미를 발견하는 지식습득단계, 심화사고형 질문과 논리적 분석, 사고의 정립을 통한 주관적 의미심화 단계, 더 나아가 영적 적용형 질문을 통한 적용과 가치 내면화와 실존적 삶에 적용하는 3단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학생의 질문유형, 해결 방안, 그 과정을 통한 의미의 구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하는 질문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중등 학생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그 질문을 해결하며 본문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2025년 1, 2학기 동안 실행한 A 교회 주중성경 학교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은 3수준 9유형으로, 해결 과정은 3가지 유형의 6가지 방안, 의미 구성은 3단계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를 연구 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질문은 크게 기초적 탐구 질문, 심화된 사고형 질문, 영적인 적용 질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각 유형은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초적 탐구 질문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나타났으나, 심화된 사고형 질문과 영적인 적용 질문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에게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세 유형의 질문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연령에 비례해 발전해갔다. 특히 저학년의 질문은 사실과 정보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고학년은 이와 더불어 의미와 상징의 해석,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도덕과 윤리, 가치관, 현실적 실천이나 적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둘째, 저학년의 질문은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 반면 고학년은 본문을 읽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 분석하였고 때로는 논리적 모순을 느끼며 갈등하였다. 그들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하려 했다. 그들은 기도 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고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파울러(Fowler, 사미자 역, 1987)의 신앙 발달 단계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으로 저학년은 아직 전조작적 특성을 보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 수준에 있는 1단계의 신앙발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2단계인 신화적-문자적 신앙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점차 3단계인 종합적-인습적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

기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한 성찰, 현대사회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 성전의 돌을 다듬는 것과 연관 지은 의미 부여 등은 학령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아동이 개인적인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기 신념에 대한 도전이나 갈등을 종교기관의 신념 체계와 동일시하려는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파울러의 3단계 신앙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owler, 사미자 역, 1987). 특히 언약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요셉이 아닌 유다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읽고 매우 놀라워하는 것은 규칙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2단계의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신앙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 구원의 문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은 3단계의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Fowler, 사미자 역, 1987).

이처럼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신앙 발달 단계에 따라 심화하면서,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더욱 다각적이고 상호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사실과 정보 확인을 넘어선 심화된 사고형 질문과 영적인 적용 질문들은, 개인의 고민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답을 모색하는 역동적인 탐구 과정으로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자기 주도형의 자문자답, 공동체적 탐구형의 토의, 또래의 조력, 정보 검색 및 AI 활용, 지도자(교사 및 사역자) 조력의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해결 방안이 개인의 내적 탐구가 아닌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기 주도형의 자문자답조차 완전히 고립된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내면적 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비고츠키(Vygotsky, 1986)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고 과정인 사적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이 뿌리를 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 역시 공동체의 암묵적인 지지와 존재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 읽기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학습 과정으로 기대하기보다 또래와 교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읽기 과정이 될 때 성경 본문의 의미가 이해되고 삶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읽기 과정이 필요하며, 15~20분 남짓의 짧은 공과 공부로는 성경 본문 깊이 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동체 안에서 질문을 나누고, 또래와 토의하며, 때로는 교사 및 AI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총체적 과정은 개리슨 등이(Garrison, et al., 2000) 제시한 탐구공동체 모델과 일치한다. 즉,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실재감, 지속적인 소통과 성찰을 통한 인지적 실재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교사의 교수적 실재감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특히 비록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AI 활용을 통한 질문 해결은, 테크놀로지가 탐구공동체의 새로운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의성 있는 발견이다. 이전까지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궁금한 단어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찾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일방향적 수준이었다면 AI에게 질문을 작성하고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읽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상호작용 방식의 활용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위험 또한 내포한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 현장에서 AI의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차바키리히터(Zawacki-Richter, 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이끌고 기술 활용을 안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AI가 제시한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교사와 사역자의 지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주로 성인 고등교육 맥락에서 논의되던 개리슨 등의 탐구공동체 모델이 초중등 학습자의 교회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 구성 과정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읽고 궁금한 것을 서로 묻고 대답을 찾아가고, 본문과 관련된 창의적인 연계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핵심적인 인지 활동이다(Graesser & Person, 1994). 질문을 통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친밀한 분위기, 교사의 반응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A 교회 주중 성경학교에서는 65분간의 본문 탐구와 연계활동으로 운영시간 대부분을 할애한다. 이는 20여 분 남짓의 짧은 주일학교 공과 공부에 비해 3배 정도의 긴 시간이며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학생들은 성경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 궁금한 단어의 뜻을 살펴봄과 본문 이해를 돕고 본문의 의미를 다양한 오감각 경험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묵상하는 연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교사와 행정 지원자, 부모의 협조와 노력은 성경 본문 이해와 질문을 촉진하고 자유롭게 탐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박보미, 2019 ; 박정진·윤준채, 2004 ; 박정진, 2006 ; 손은주·박영태, 2011 ; 양미경, 2002 ; 황청일·임호용,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성경은 혼자서 읽고 단순히 수용해야 할 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공동체와 함께 탐구하며 살아있는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텍스트였다. 학생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깊이 사유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주체적 신앙을 키워가도록 돕는 성경 중심, 공동체 중심의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회학교 교육 현장의 실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질문과 의미 구성 과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육적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세대가 깊고 넓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교회교육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수업 전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미 구성의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연령과 신앙 발달 수준에 맞는 교사 발문 전략, 질문을 촉진하는 수업 조건이나 구체적인 교사 지침, 의미 구성을 돕는 교사의 반응이나 비계설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향림 (2009). 수업과정에서의 교사의 질문 전략과 그 효과. **부산교육학연구**, 22, 1-23.
- 고아라 (2025). **학생 질문에서 출발한 탐구 수업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 성찰**.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권낙원·민용성 (2003). 인지양식에 따른 발문유형별 학습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3(2), 171-190.
- 김성근·여상인·우규환 (1999).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 질문에 대한 연구 (1) - 학생 질문을 강화한 수업의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9(3), 377-388.
- 김재우 (2017). 중학생의 성경 이해도에 관한 연구 - 세 종류의 한국어 성경번역본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논총**, 52, 329-359. <http://dx.doi.org/10.17968/jcek.2017..52.010>
- 문병호 역 (2020). **기독교 강요**. Calvin, John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생명의말씀사.
- 박보미 (2019).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반응간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라미·안준희 (2005). 미술수업에서 질문의 기능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초등미술교육 중심으로. **미술 교육논총**, 19(2), 285-319.
- 박정진 (2006). 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1, 71-98.
- 박정진·윤준채 (2004). 읽기 수업에서의 질문 들여다보기 -비판적, 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2, 119-144.
- 사미자 역 (1987). 신앙의 발달단계. Fowler, J.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서혜정 (2021).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 **생명과말씀**, 31(3), 214 - 265. <http://dx.doi.org/10.33135/srlt.2021.31.3.214>
- 선주원 (2003). 질문하기 전략을 통한 문학 교수학습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 255-288.
- 손은주·박영태 (2011). 유아주도적 질문과 교사주도적 질문이 유아의 동화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1(4), 201-225.
- 송우재 (2013). **사례연구를 통한 성경공부의 원리와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 신현광 (2013). 기독교교육의 성경적 토대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4, 361-390.
- 신현호 (2023). 성경교육 커리큘럼 내용 선정의 신학적, 교육적 원리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86, 579-612. <https://doi.org/10.14387/jkspth.2023.86.579>
- 안은주 (1997). 성서연구의 해석학적 패러다임. **기독교사상**, 41(7), 167-181.
- 양미경 (2002). 학생의 질문 행동 및 내용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 분석. **교육학연구**, 40(1), 99-128.

- 윤철희 (2017). **한자를 활용한 신앙교육 연구** : 성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이명숙·조광희·송진웅 (2004). 소집단 실험활동에서 나타난 중학생 질문 - 응답의 유형과 빈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2), 277-286.
- 이종일 (2004). 개념 언어화를 위한 질문방법. **사회과교육**, 43(2), 3-26.
- 정선화 (2010). 질문 유형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어문연구**, 38(1), 489-513.
- 진영은 (2000).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중의 질문법에 관한 분석. **인문과학**, 30(1), 81-100.
- 최선미·여상인(2011). 초등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 질문 유형 분석. **과학교육논총**, 24, 137-146.
- 최일선·지옥정 (2006). 소집단 과학 활동에서의 유아 교사의 질문형태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44, 59-80.
- 황청일·임호용 (2011).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저해요인 탐색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3), 55-74.
- Garrison, D. R., Anderson, T. & Archer, W. (2000). Critical inquiry in a text-based environment: Computer conferencing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2-3), 87-105. [https://doi.org/10.1016/S1096-7516\(00\)00016-6](https://doi.org/10.1016/S1096-7516(00)00016-6)
- Graesser, A. C. & Person, N. K. (1994). Question asking during tutor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1), 104-137.
- Vygotsky, L. S. (1986). *Thought and language* (A. Kozulin, Rev. ed.). MIT Press.
- Zawacki-Richter, O., Marín, V. I., Bond, M. & Gouverneur, F. (2019).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in higher education-where are the edu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6(1), 1-27.

교회학교 성경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탐구 : A 교회 주중성경학교 학생의 질문을 중심으로

An Inquiry into the Meaning-Making Process in Church School Bible Reading: Focusing on Student Questions at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김 정 준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학교 학생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A 교회 주중성경학교에서 2025년 1년간 기록된 교사 일지를 바탕으로 귀납법적인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질문과 그 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의미 구성 과정을 탐색하였다. 학생들은 첫째, 사실과 정보 확인, 역사 및 배경 탐구, 의미와 상징 해석을 위한 기초 탐구형 질문; 둘째, 논리와 과학적 추론, 텍스트 너머의 가정,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심화 사고형 질문; 셋째, 도덕과 윤리적 가치, 초월과 종말, 실천과 적용을 위한 영적 적용형 질문을 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첫째,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자문자답; 둘째, 또래의 조력, 토의, 정보 검색과 AI 활용을 통한 공동체적 탐구; 셋째, 교사가 개입하거나 사역자의 설명을 듣는 지도자 지원을 통해 질문을 해결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은 본문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탐색에서 심화된 사고와 추론, 영적 의미 탐색과 삶의 적용으로 심화되었으며, 단순히 교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학습자를 넘어 또래 집단과의 토의, 정보 검색과 AI 활용 등 자기 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인 탐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탐구공동체 모델을 교회학교 교육 맥락으로 확장하고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했다. 실천적으로는, 학생들의 질문과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참여적 교수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교회학교, 성경읽기, 질문, 의미 구성, 공동체적 탐구